

협회 동정

LAN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건의

우리협회는 오는 5월 정보통신부에 LAN연구조합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AN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우리협회와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LAN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담반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내 LAN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고 1995년 현재 15%(2500억원 규모)에 불과한 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200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 LAN 시장은 기술적 기반의 취약등으로 85% 이상을 CISCO, NOVEL, MS등 세계 유수의 LAN장비·S/W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들은 외국업체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LAN산업의 현실을 감안, 우리협회는 LAN산업을 육성키 위해 중점기술 확보 대상 과제로 Switching LAN, 무선(Wireless) LAN, ATM LAN(이상 ATM을 기반으로 한 주요

관련장치), 행정업무통합패키지, 지역정보서비스패키지(이상 응용 S/W) 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LAN연구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특히 LAN연구조합의 설립은 미국등 선진국들의 LAN 관련기술이 ATM Based Switching, Network Interface, Network Management, Virtual LAN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LAN관련 전문인력의 양성등 국내 LAN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요구됐다.

이 건의문은 지난 95년 3월 우리협회가 LAN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담반을 설치,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리협회는 이 건의문을 오는 5월말경 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장 선출등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본격 가동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성·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이현씨(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이주현씨(한국의국어대 교수)를 각각 초대 심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한국통신기술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음성정보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권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김옥순 위원(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성정보심의세칙을 의결했으며 세부심의 적용기준은 차기회의에서 과거사례를 검토후 현실에 맞게 적용기준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한국통신기술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주현 위원이 초대 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성재수 위원(정보교사단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음성정보심의세칙을 의결했으며 세부적인 심의적용기준과 기타 비음성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자료를 토대로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발족에 관한 경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칙 및 심의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등이 보고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심의위원장 선출 ▲음성·비음성정보 심의세칙(안) 의결등이 상정됐다. ◆